

조희성 구세주의 5대공약

대한민국에 계속 풍년들게 하겠다

IMF 등의 한국경제 위기 중에 한국이 재빨리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세주의 5대 공약 덕분이다. 만약, 경제위기 중에 국민들이 굶주리는 흉년이 왔었다면 말 빠른 경제 도약이 가능했겠는가?

대한민국에 계속 풍년들게 하겠다.

- ▶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 ▶ 대한민국에 여름 장마를 못 지게하겠다.
- ▶ 대한민국으로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하겠다.
- ▶ 대한민국에 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겠다.



풍년이 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조량, 강수량, 병충해, 태풍과 장마 등의 제반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야 풍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풍년은 하늘(하느님)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풍년을 비는 제사를 하늘에 드렸던 것이다.

80년 이전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정도령(구세주)께서 출현하신 1981년 이후는 계속 풍년이었다.

이는 자연조건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정도령(구세주)는 풍요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존재로서 자신이 1981년도에 한 약속, '대한민국에 풍년들게 하겠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장마란 6.15.경부터 7.15.경까지 지속적으로 오는 비를 말한다. 장마기간은 풍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개 장마기간은 모내기 후 비가 뿌리를 완전히 내리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이때 장마가 지면 모가 다 죽게 되어 흉년이 들게 된다.



조선일보 8월 23일자 보도 내용
기상청이 내년부터 장마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예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상청은 이와 관련해 22일 "앞으로 기상청 예보에서 장마와 장맛비, 장마철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가 시작돼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거나 장마전선이 물러난 이후에 장마 때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는 등 장마 예보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학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당일날 우리나라 모든 매스컴 일체는 기상청의 장마 예보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다루었다.

정도령(구세주)의 공약이 실현되었음을 학계와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쌀생산량

연도	재배면적(천ha)	생산량(천톤)	연도	재배면적(천ha)	생산량(천톤)
1980	1,233	3,550	1997	1,052	5,450
1981	1,224	5,062	1998	1,059	5,097
1982	1,188	5,175	1999	1,066	5,263
1983	1,228	5,404	2000	1,072	5,291
1984	1,231	5,682	2001	1,083	5,515
1985	1,237	5,626	2002	1,053	4,927
1986	1,236	5,607	2003	1,016	4,451
1987	1,262	5,493	2004	1,001	5,000
1988	1,260	6,053	2005	980	4,768
1989	1,257	5,898	2006	955	4,680
1990	1,244	5,606	2007	950	4,408
1991	1,208	5,394	2008	936	4,843
1992	1,157	5,331	2009	924	4,916
1993	1,136	4,750	2010	892	4,295
1994	1,103	5,060	2011	854	4,224
1995	1,056	4,695	2012	849	4,006
1996	1,050	5,323	2013	833	4,230
			2014	816	4,241

쌀 생산량 도표(위) 설명

조희성 구세주가 출현하여 5대공약을 발표하여 그 약속이 해마다 지켜졌다. 5대공약 중 풍년들게 하겠다는 공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위 도표는 보여준다.

첫째, 1980년 쌀 재배면적은 1,233,000ha, 생산량은 355만톤이었으나, 재배면적이 30% 이상 감소한 2014년(816,000ha)에는 쌀 생산량이 424만톤이나 되어 생산량은 70만톤 이상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쌀 재배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당연히 생산량이 줄어들어야 함에도 오히려 늘어난 것은 구세주께서 풍년들게 권을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둘째, 1980년 이전에는 한 해 풍년이 들면 다음 해에 흉년이 들거나 하면서 풍년과 흉년이 번갈아 가는 모양새였으나 구세주가 출현한 다음에는 흉년이 한 해도 지지 않았음을 도표는 보여준다.

셋째, 1992년과 2005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쌀 재배면적이 한 자릿수 이상 감소했음에도 쌀 생산량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구세주의 능력으로 일정량 이상의 쌀 생산을 주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구세주의 능력으로 풍년이 들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1981년 이전에는 매년 20여 회 이상 불어오는 태풍으로 풍년이 들기 일쑤로 수확은 이재민이 속출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어왔다.

1981년도부터는 태풍이 실종이 됐는지 한반도로 불어오지 않거나 우리나라로 불어오다가도



갑자기 진로를 바꾸거나 소멸되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태풍미화현상'이 일어났고 있다.

1988년 8월 12일자 일간스포츠 신문은 "여름 불장격 태풍 실종"이라는 제목에 '태풍 9개 발생, 모두 진로 바뀌거나 소멸'이라는 소제목을 달았다. 승리자 조희성 선생의 "태풍을 우리나라에 불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공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5대 공약의 실현은 전지전능한 구세주임을 증거한다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본부제단 032-343-9981~2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10-7516-159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포항제단 : (054)291-6867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63)533-7125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横浜祭壇 : (045)489-9343
 神戸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London : (0208)894-1075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